

마을 건강센터 디지털 전환

한정원¹ · 한준식²

¹부산가톨릭대학교 · ²(주)K2CS

Community Health Center Digital Transition

Jeong-won Han^{1*} June-Sik Han²

¹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²K2CS Ltd.

E-mail : jhan@cup.ac.kr / ralf0503@gmail.com

요 약

부산광역시는 지역사회기반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달리,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산 지역 내 71개소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본 논문에서는 마을건강센터를 디지털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을건강센터에서 활용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첫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지표 구축으로 각종 질환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 둘째, 사물인터넷으로 모바일 기술과 함께 로그 라이프 등 각종 건강지표관리 관리하는 것, 셋째, 지능형 로봇으로 독거노인의 말벗과 위급상황 알리미로 활용하는 것이다.

ABSTRACT

Busan Metropolitan City runs Community Health Center which aims to health care service based on the community, besides the established health medical service towards people with low-income. 71 centers are run in 2021,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way of digital transition of these centers. Digital Technologies possibly adopted inside the centers are: First, smart devices to advance the management system of chronic diseases based on health index; Second, IoT with mobile tech to manage health index; Third, AI Robot to care lone elderly people and to warn the emergency.

키워드

Community Center, Digital Transition, Digital Health Management, IoT, Smart Device

I. 서 론

부산광역시는 지역사회기반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달리,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산 지역 내 71개소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본 논문에서는 마을건강센터를 디지털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디지털전환 모색 중이며 이는 향후 건강·의료·복지 서비스의 수요 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마을건강센터는 지역사회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위기청 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다[1].

II. 연구배경

부산광역시 건강지표는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부산광역시 내 지역 간에도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2]. 부산광역시는 특·광역시 중 암·심장질환 사망률 1위,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이며 소지역(읍면동)간 표준화 사망비 차이가 약

* speaker

2.2배로 건강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3].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보건·복지 연계한 지역기반의 건강케어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는 건강공동체로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로 건강한 밥상 만들기, 육아 품앗이, 고독사 예방활동,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 등이 있다[4].

표 1. 부산광역시 사망원인지표 및 주요건강지표

지 표 명	단위	2020		특광역시 순위					
		부산	전국	'16	'17	'18	'19	'20	
사망 원인지표	연령표준화 사망률	명	326	300	2	1	2	2	1
	암 사망률	명	96.1	86.3	1	1	1	1	1
	심장질환 사망률	명	38.9	29.4	2	1	1	1	1
	뇌혈관질환 사망률	명	24.2	20.1	4	2	4	2	2
	자살 사망률	명	22.6	21.9	2	1	6	4	5
주요 건강지표	현재 흡연율	%	18.5	19.8	3	2	4	4	4
	고위험 음주율	%	15.5	15.4	3	3	1	3	2
	걷기 실천율	%	40.7	37.4	4	2	2	3	3
	건강생활 실천율	%	29.3	26.4	3	2	2	2	3
	비만 유병율	%	30.1	31.3	-	-	3	5	3
	우울감 경험률	%	5.7	5.7	4	3	2	3	3

[출처 :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 통계,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정책과 자료]

III. 마을건강센터의 디지털 전환

마을건강센터는 보건소와는 달리 근접성이 좋으며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간호사, 건강활동가, 보건소 담당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건강상담, 만성질환 등록 관리 및 건강공동체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 검사 및 예방 상담을 받고 정기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마을건강센터의 활동으로는 첫째 상시적 건강관리로서 건강 상담,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 체성분 및 콜레스테롤 검사, 치매검사, 우울 측정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으로 걷기 동아리, 댄스 동아리, 건강 동아리, 취미 동아리 등이 결성되어 있다. 셋째 건강한 마을 만들기로서 마을 돌아보기, 마을 유해환경 감시단, 운동시설 점검, 텃밭 가꾸기, 마을 청소, 마을 건강환경 조성, 감염병 지킴이단 운영 등이 있다.

마을 건강센터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모바일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지만 현재 마을건강 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각종 건강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질환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사물인터넷으로 모바일 기술과 함께 로그 라이프 등 각종 건강지표관리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셋째, 지능형 로봇으로 독거노인의 말벗과 위급상황 알리미로 활용 가능한데, 2022년 현재 부산진구에서 지능형 로봇 다솜이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시행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5].

IV 결론

디지털 전환은 혁신 주체 간 상호 긴밀한 상호대응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마을건강센터의 디지털 전환 추진의 관점에서도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며 지역을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건강센터는 디지털 전환의 주체이자, 개발 과정에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개발과정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직접 사용자가 사용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술친화도 향상 및 제품 상용화 모색 또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건강케어모델 구축이 가능하며 이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마을 단위에서 진행한다. 동 단위의 시민 접근성 높은 센터에서 보건·복지 연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대응적·사후적(진단과 치료) 의료서비스에서 예방·관리까지 포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References

- [1] Busan City. Digital Transition, Digital Twin. 2022.
- [2] Busan City. Community Health Research. 2020.
- [3] KOSTAT, Cause of Death. 2020.
- [4] <https://www.busan.go.kr/depart/health0205>
- [5] <https://www.busan.go.kr/nbtnewsBU/1517967>